식품과학과 산업 Vol. 55, No. 3, pp. 308~325 (2022)
https://doi.org/10.23093/FSI.2022.55.3.308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중의 식량사정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food situation during the Korean War

이철호[1,*]
Cherl-Ho Lee[1,*]

[1]고려대학교
[1]Emeritus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food life of Korean people during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war was reviewed.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s, and the ensuing Korean War made Korean society extremely chaotic and transformed. Consequently, data on Korean dietary life during this period (1945-1960) are scarce and unreliable. The author tried to reveal the food situation and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Koreans during this period by examining the data released by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other review books. Regarding the nascent period of the food industry after the Korean War, data from the recent 50-year history of the Korea Food Industry Association has been compiled.

Keywords: Korean food habit, Food and nutritional status of Korean, Korean war,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food industry

서 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은 이미 국력 이상의 무리한 전선의 확장과 연이은 패배로 군대가 거의 궤멸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에 연합군은 포츠담 선언 등을 발표하며 일본에게 전쟁을 끝낼 기회를 주었으나 일본제국이 이를 묵살하고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일본의 전쟁 의지를 꺾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한 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이로 인해 히로시마에서는 군인 2만 명 이상, 민간인 16만 명이 사망했으며, 나가사키에서는

*Corresponding author: Cherl-Ho Lee
3, Gwangneungsumogwon-ro 779beon-gil, Soheul-eup, Pocheon-si, Gyeonggi-do, 11187, Korea
Fax: 82-2-927-5201
E-mail: chlee@korea.ac.kr
Received June 13, 2022; revised August 8, 2022; accepted August 8, 2022

9만 명이 사망했는데 조선인도 3만 명이 사망했다.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연합국에 항복을 통보하고, 8월 15일에 천황 쇼와 덴노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미국은 1945년 9월 2일 도쿄 만에 정박한 전함 미주리호의 선상에서 항복 조인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 외무대신 시게미츠 마모루가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시게미츠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다리를 다쳐 의족을 달고 지팡이를 짚고 항복문서 조인식에 나왔다. 이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은 종결되고 연합군의 일본 점령으로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또한 천황 중심의 일본 제국은 멸망하고 일본국 헌법을 기축으로 하는 일본국으로 바뀌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일본의 책임을 묻는 도쿄 국제군사법정은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7인을 도쿄 스가모에서 교수형에 처했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범은 25명뿐이고, 당시 일왕이자 최대 책임자였던 히로히토와 난징 대학살 지휘관이었던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를 비롯한 일본 왕족들은 처벌을 면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에서 판결을 받고 사형이나 징역 등 끝까지 추적되어 처벌 받았지만 일본의 전범들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 살아남거나 일본 정 · 재계로 되돌아갔다. 처형된 A급 전범들도 1978년 쇼와순난자라는 이름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

일제의 패망으로 우리 민족은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았으나 36년간의 일제의 수탈로 들판은 비었고 국민은 만성 기아와 영양실조로 굶주리고 있었다(이철호, 2022). 게다가 만주와 북한에서 230만 명의 동포가 일시에 귀국하여 식량난은 더욱 극심해졌다. 광복 직후 150원에서 200원 정도였던 쌀(정백미) 한 말의 가격이 1946년 700원, 1948년에는 1,900원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한미재정협정을 체결하여 경제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시기 경제를 지탱해준 것은 미군정의 원조였다. 미군정은 남한의 식량부족, 전염병, 폭동 등을 막기 위해 밀가루, 비료, 의복, 석탄, 석유 등을 제공했다. 미군의 점령지 구제 정부자금(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은 1948년까지 4억 달러 규모로 제공되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 12월 한미원조협정이 체결되었고 원조경제체제가 본격화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

한국의 독립은 1943년 11월 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미국, 영국, 중국 연합국의 모임에서 논의되어, 같은 해 12월 1일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 민족의 노예 상태에 주목하여 적절한 유예기간과 과정을 거친 후에 독립시키기로 약속되었다. 이 약속은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전 약속은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인이 국내외에서 보인 독립의지와 항일무장투쟁으로 얻어진 것이다.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와 행정권 이양 교섭을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1945년 8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활동하였으나 곧 미국과 소련의 점령군이 한반도에 진입한다. 미국과 소련은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보고 소련은 8월 말 개성과 춘천을 포함한 38선 이북을, 미군은 9월 8일 38선 이남을 점령하여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은 2차 세계 대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1945년 12월에 개최하여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협의하여, 미 · 소 공동위원회의를 설치하고 임시 민주정부의 수립, 정부 수립과정에서 정당과 단체의 참여, 최대 5년간 신탁통치의 실시 등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우익은 신탁 통치 반대의 입장을, 좌익은 신탁통치 반대에서 미 · 소공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는 등 이후 좌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로 인해 미 · 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발언(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위원회를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 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분단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자 좌우합작 김규식과 여운형 등 중도 세력에 의해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하여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난다.

1947년 9월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키고 유엔에서는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유엔 한국위원단이 파견되지만 북한과 소련의 입북 거부로 결국은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된다. 이승만 등의 우익세력 한민당은 적극적으로 참

표 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 3·1운동에 기초한 망명정부
- 카이로 선언, 1943년 12월 1일. 이집트 카이로, 한국민족의 독립 약속
- 포츠담 회담, 1945년 7월 17-8월 2일. 독일 포츠담, 한국의 독립 재확인
- 일본의 항복, 1945년 8월 15일. 한국의 광복, 미·소 분할 통치
- 조선건국준비위원회, 1945년 8월 15-9월 7일. 김규식, 여운형 등
- 미·소 점령군 한반도 진출, 1945년 8월 말(소련군), 9월 8일(미군), 군정 시작
- 모스크바 3상회의, 1945년 12월. 한반도의 신탁통치안, 5년간 신탁통치 합의
- 미·소공동위원회, 1946년 3월 20일. 임시민주주의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 유엔총회, 한반도의 총선안 통과, 1947년 11월 14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파견
- 남한 총선, 1948년 5월 10일. 198명 국민대표 선출, 제헌국회 창설, 이승만 대통령 선출
-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여하였지만 김구 등의 한독당은 반대하여 남북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김구 · 김규식 등은 '남북대표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의하여 북한에까지 다녀왔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남한만의 총선을 반대한 남로당은 1948년 2월 7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 4월 3일에는 제주도에서

그림 1. 대한민국 건국수립 선포식, 1948년 8월 15일

무장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 · 3사건).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48년 5월 10일 역사상 최초의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가 실시되어 총의원수 300명 중 북한지역에 배당된 100명과 제주도 의석 2명을 제외한 19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으며, 5월 31일에 최초로 국회가 개원되었고, 임시의장을 맡은 이승만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여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제헌국회를 시작했다.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제헌국회 기도문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걸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출처: https://jinanmuzik.tistory.com/19 [JiNan's Story]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역할

이승만(1875–1965)은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나, 대한제국 시절 독립신문과 협성회회보 주필, 독립협회 활동 등 계몽운동을 하였고, 왕정폐지와 공화국 수립을 도모하였다는 반역의 죄목으로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다. 수감시절 기독교로 개종하고, 옥중 계몽운동을 하면서 '독립정신'을 저술하였다. 대한제국 말기 특별 사면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제 강점기 조선에 귀국하여 계몽교육을 하다가 일제의 체포 위협을 피해 1912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한인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하였다. 1919년 3 · 1운동 이후 외교독립론을 주장하며, 대한국민회의, 상해임시정부, 한성정부 등에서 임시정부의 수반을 거쳐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Presi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을 역임했으며, 그 이후 주로 미국에서 외교중심의 독립운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제헌국회 의장, 초대 대통령을 역임(1948–1952)하였으며, 제2차 이승만 정부(1952~1956), 제3차 이승만 정부(1956~1960)를 이끌었다. 1960년 85세의 나이로 대통령 4선에 당선되었으나, 개표 과정에서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위한 개표조작이 발각되어 3 · 15 부정선거 반대시위가 일어났고, 4.19 대학생 총궐기시위가 일어났다.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은 4월 28일 경무대에서 이기붕의 장자이자 이승만의 양자인 이강석에 의해 가족들과 함께 사살되었다. 이승만은 1960년 4월 27일 국회에 대통령직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즉시 수리되었다. 자진 하야 후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은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망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공과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승만은 좌파쪽에서는 물론이고, 소위 박정희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 쪽에서조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섣불리 평가를 하면서, 그의 공적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고 과오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 매도하는 경향이 크다. 최근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룬 주요 업적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시도를 저지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초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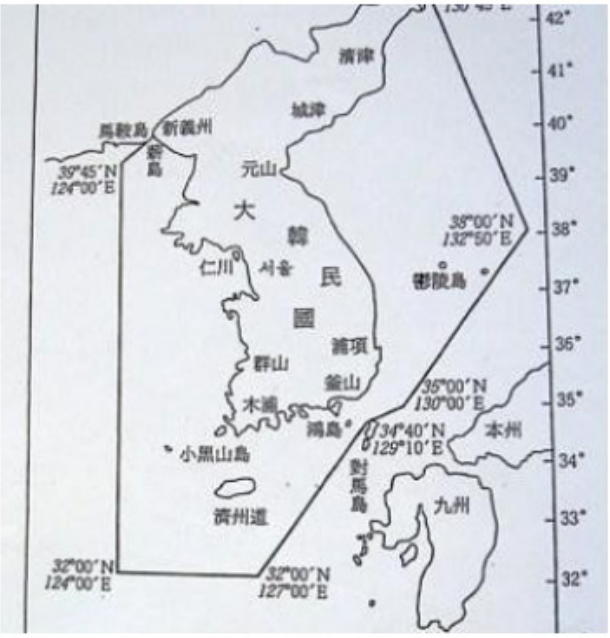

그림 2. 평화선(Peace Line) '이승만 라인'

닦은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이승만의 업적이다. 소작제도를 철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여 6.25전쟁으로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으며, 전쟁 중에 '이승만 라인' 평화선(Peace Line)을 선포하여 독도와 한반도 영역을 확고히 했다(그림 2). 그러나 1996년 5월부터 2년 3개월간 진행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한국측 협상대표의 미숙으로 독도영유권이 흔들리는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이철호, 2012).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 미군이 제시한 일본군과 대만군의 국내주둔 및 지원의사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미국에게 우리의 자주적인 권리를 천명했다. 휴전을 끝까지 반대하여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2억 달러 부흥 원조와 한국지상군 20개 사단 증강,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충주비료공장, 문경시멘트공장, 인천판유리공장 등을 준공하여 중화학공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의 세계적인 원자력 국가의 토대를 닦았다. 1953년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해 문과를 강조하던 전통을 바꾸어 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의무교육을 실시해 10년도 되지 않아 초등학교가 2800개에서 4600개로 신설되어 학

생 수가 136만에서 360만으로 증가했고, 대학도 19개에서 68개, 대학생은 8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중학교는 10배, 고등학교는 3.1배, 대학교는 12배로 늘어났다. 또 문맹퇴치운동을 통해 1948년 문맹률 80퍼센트에서 1959년 22.1퍼센트로 줄였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 불교, 유교를 포용하고 아우르는 정책들을 펼쳤으며, 전후 56종의 일간신문과 177종의 월간지를 포함하여 411종의 언론 매체가 활동하는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건국과 부흥의 과정에서도 식목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등 산림녹화와 사방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쳤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내각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의 토대를 만들었다.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을 1인당 6천 달러를 들여 인재들을 국비유학을 보냈다. 1953년~1960년 기간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나간 유학생이 4,884명, 1953~1961년 기간에 해외로 떠난 단기연수 기술훈련생은 2,309명, 미국을 다녀온 군 장교와 하사관은 1만 명으로 이들 모두 나중에는 공업화와 근대화의 기수가 되었다. 그의 공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은 건국대통령이었다. (출처: https://swk3169.tistory.com/109)

농지개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의 합리적인 배분은 구한말 실학파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실학파의 거두 유형원(1622-1673)은 반계수록의 첫머리에 "토지의 경제가 똑바르면 만사가 필한다. 토지제도를 바로 잡지 않으면 경제생활이 끝내 떳떳치 못할 것이요. 그 까닭은 토지는 천하의 대본이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강인희, 1978). 연암 박지원(1937-1807)은 그 자신 군수로 있으면서 허생전(許生傳)과 양반전(兩班傳) 등의 저술을 통해 토지가 없는 농민들의 한숨과 농토의 분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농민의 실태를 고발하였다. 철학사상의 완성자라 할 수 있는 정약용(1762-1836)도 정치의 주체를 민중에 두고 경제개혁 사상의 중심을 전제개혁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농지개혁은 시대적 과제였으며 조선왕조의 몰락과 함께 출발한 대한민국 공화정부의 가장 시급한 사회개혁 과제였다.

1945년 8 · 15광복 전후의 농지소유 실태를 보면 농지 총면적 222만5752ha로 1호당 평균 1.078ha였으며, 자작농(自作農)이 전농토의 37%인 85만 ha, 소작농이 63%인 147만 ha였다. 농가호수에서는 순자작 13.7%, 자작 겸 소작 34.6%, 순소작 48.9%, 피용자(被傭者)가 전체 호수의 2.7%였다. 또 소작료는 경작자 대(對) 지주의 비(比)가 5:5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945년 10월 5일 미군정법령에 의거, 종래의 고율소작료를 수확량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일본인 소유토지와 재산을 군정청 관리 하에 두도록 하였다. 또한 1946년 2월 21일 법령으로 이 재산을 신한공사(新韓公社)에 귀속시켜 귀속농지라 규정하면서 농지개혁의 기본정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입법의원 내의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던 지주계급 출신의 한민당 의원들이 정부수립 후에 농지개혁을 실시하자면서 계속 이를 반대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1948년 3월 11일 과도정부법령을 공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농지, 즉 귀속농지에 한하여 우선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것을 제1차 농지개혁 또는 미군정하의 농지개혁이라 한다. 그 개혁의 골자는 유상매수(有償買收)와 유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 호당 2㏊(논 · 밭 포함)를 상한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농지가격은 해당 농지에서 생산되는 연간생산량의 3배의 현물로 하되, 지불방법은 연간생산량의 20%씩을 15년간에 상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연부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인 소유농지였던 귀속농지 29만1000㏊가 미군정의 관리 하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던 농민에게 분배되었다. 또 그 업무를 맡았던 중앙토지행정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농림부에 이관, 접수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정된 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방법, 소유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지개혁을 정책화하였다. 이에 따라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공표되고, 일부 개정안이 1950년 3월 10일 공표되면서 농지개혁 실시를 위한 입법조처가 완전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농지개혁법의 주요 골자는 유상매수 · 유상분배, 한

가구 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고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매수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가진 농지도 정부가 사들여 이 토지를 소작농에게 역시 3정보를 상한으로 분배하고 매년 평균 생산량의 30%씩 5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게 하는 것이다.(제2차 농지개혁)

농지개혁법시행령 및 이 시행규칙이 공포될 무렵인 1949년 6월 21일에 집계된 총 매수대상면적은 60만 1000㏊로, 총 경지면적의 27%에 달했으며, 귀속농지 29만 1000㏊를 포함한 총 분배예정면적은 89만 2000㏊에 이르러, 총 경지면적 222만 6000㏊의 40%에 달했다.

농지개혁에 의해 영세농에 분배된 농지는 일반 수매농지가 75만 5000ha, 적산농지 26만 9000ha로, 총면적은 102만 4000ha였다. 그런데 농지개혁이 있게 되자 이에 앞서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 전매가 이루어져 농지개혁 전에 이미 절반 이상의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지개혁이 구체적인 실시단계에 들어갈 무렵 불행하게도 6 · 25전쟁이 일어나 전화를 모면한 경상남도 일대를 제외한 전국이 농지개혁 실시를 부득이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9 · 28 서울수복과 더불어 농지개혁 관계 서류의 소실 및 분실 등의 애로가 중첩되었음에도 농민의 오랜 숙원이던 농지개혁사업은 다시 착수하게 되었다.

농지개혁 자체는 당초 목적한 대로의 성과는 올리지 못하였다. 귀속농지를 포함하여 8 · 15광복 당시의 소작면적 144만 7000㏊의 42.4%(61만 3000㏊)만 〈농지개혁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개혁이 되었고, 나머지 83만 4000㏊(은폐소작지 15만 8000㏊)는 〈농지개혁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지개혁 직후 은폐소작지로 남아 있던 면적은 15만 8000㏊로 8 · 15광복 당시 전체 소작지면적 144만 7000㏊의 11%에 불과하고, 전농지의 8%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농지개혁으로 분배되지도 않고 은폐소작지로 남아 있지도 않았던 67만 7000㏊의 행방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면적은 결국 농민 소유로 돌아가 자작지화(自作地化)되었다. 그것은 농지개혁의 절차에 따라 분배되지는 않았지만, 지주와 소작인간의 합의에 따라 농지개혁에서 정한 지가수준(地價水準)이나 상환조건에 준해서 직접 양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편 북한은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표한 〈북조선토지개혁법〉에 의해 무상몰수 · 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빈농 · 머슴을 중심으로 한 농촌위원회를 각지에 조직하고, 그 주도하에 일본인 · 민족 반역자 ·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땅을 무상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부족한 농민에게 가족 수에 따라 무상 분배했다. 분배된 토지는 일체의 채무나 부담액 등이 면제되었고, 매매 · 소작 · 저당이 금지되었다. 지주 중에서도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한 경우에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었고, 토지개혁에 우호적으로 스스로 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옥과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고 고향에서 사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반항하는 지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토지를 몰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로써 전경지면적의 50%에 달하는 98만 1,390정보가 72만 4,522호의 농가에 분배되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 농촌의 계급관계는 크게 달라져, 지주계급이 청산되고 부농이 위축된 반면, 소작농 · 빈농 · 농업노동자들이 농촌의 주요 계층으로 등장, 당과 정권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은 곧 전 국토 국유화 공산정책에 의해 모두 몰수되었다. (한국근현대사사전)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은 농지개혁을 경쟁적으로 단행했다. 처음에는 북한의 토지개혁이 과감하고 정당해 보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에 기반한 토지개혁은 개인재산의 몰수를 위한 방편이었다. 북한의 상황에 대한 칼드웰(J.C. Caldwell)의 기술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북한은 1946년 민심을 얻기 위해 단 25일 만에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1948년 이들은 공산당에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선택적 혜택을 주기 위해 전면적인 재분배를 실시하면서, 토지 소유가 아닌 토지사용권(utilization right)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북한정권은 사용권을 박탈함으로서 국민을 노예화할 수 있었다. 1947년 북한은 벼농사에 27%의 세금을, 기타 곡식에는 25%의 세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더하여 관개비용(irrigation fees), 군사세금(army levies), 기타 각종 명목의 세금으로 수확의 거의 모두를 걷어갔다. 공산당개혁에 대한 나의 지식은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에게서도 확인되었다. 어떤 개혁은 처음에는 대단히 뛰어난 혁신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런 개혁들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미끼일 뿐이고,

결국은 경찰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들의 개혁은 허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거짓 신화를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도 아직 믿고 있다."(Caldwell and Frost, 1952)

한국전쟁(1950-1953)

한국전쟁(또는 6.25사변)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북위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이 남한을 불법 기습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 전쟁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미 · 소 양국의 군대를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소련은 그해 10월부터 철병을 개시했으며, 미국은 1949년 6월에 약 500명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7,500명의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9년 3월 17일 북한은 소련과 조소군사비밀협정을 체결하고, 중공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중국 공산군에 있던 조선군 2만 5000명이 북한에 인도되었다. 1949년 10월 중국대륙이 공산화되었고, 1950년 1월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1949년 말경 김일성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계획을 스탈린(I. V. Stalin)으로부터 승인받았다. 김일성은 남한의 혼란 상태에서 밀고 내려가면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이 북한군을 환영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전해에 농지개혁으로 농토를 소유하게 된 남한의 농민들은 북한군을 환영하지 않았다. 북한은 기습공격으로 전쟁발발 3일 후인 6월 27 서울을 점령하고 7월 3일에는 한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진하여 호남지방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소위 '해방전선'에 적극 가담할 줄 알았던 남한 인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고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이 북한군의 군수품과 식량 수송을 차단했다.

국제연합(UN)은 북한의 남침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다국적 유엔군을 창설하여 한국전쟁에 투입했다. 참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의 16개국과 병원선을 보낸 스칸디나비아 3국 등이 참여했다. 7월 7일 맥아더(D. MacArthur)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조직되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했다.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0일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 부근까지 진격했으나 더 이상 진격을 멈춘 사이 11월 중순 중국인민지원군이 개입하여 전세가 뒤집혔다. 혜산진까지 진격하던 연합군은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큰 피해를 보고 흥남부두에서 대규모 후퇴작전을 벌였다.

흥남철수작전은 1950년 12월 15-26일 미군 장비를 실은 수송선(Navy LST, Meredith Victory호 등)에 10만여 명(98,100명)의 북한 탈출민을 태워 거제도와 부산, 재주도 등지에 피난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Gilbert, 2000). 이들 피난민들은 대부분 지난 5년간 공산치하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이었다. 군용선에 민간인을 태우도록 허락받은 알몬드 사령관의 통역장교 현봉학은 훗날 호국인물,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철수작전을 지휘한 미10군단 사령관 에드워드 알몬드(Edward Almond) 장군과 라루(Leonard Larue) 메러디스 빅토리호 선장도 6 · 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되었다.

국군은 1월 4일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후퇴했으나(1 · 4후퇴). 2년여에 걸친 전투 끝에 1953년 7월 22일 38°분계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정전협정을 반대하여 유엔군과 북한군만이 협정에 조인하였다. 전쟁의 피해는 엄청나서 남한인 200여만 명 사상, 북한인 332여만 명 사상, 미국인 4만여 명 전사, 중공군 18만여 명이 전사하였다(국가기록원, 2021)(표 2). 남북한 모두 도시와 농촌이 파괴되고, 국민은 기아선상에 헤매게 되었고 수십만의 고아가 발생했다. 전쟁 중에 북한의 공산치하를 탈출하여 남한으로 내려온 피난민이 2백만 명에 달했다.

1948년 1월 유엔임시위원회의 종군기자로 한국에 온 존 칼드웰(Jhon C. Caldwell)은 그의 저서 '한국 이야기(The Korea Story)'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난 시기의 국내외 사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 자신이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춘천에서 근무할 때 그의 조수로 일한 플레처와 결혼했다. 플레처는 선교사(A.G. Fletcher)의 딸로 한국에서 나서 교육받은 미국인이다. 칼드웰은 1880년대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에 의해 시작된 한국 기독교가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

표 2. 한국전쟁의 피해규모

한국		북한	
군인		군인	
149,005명	전사	294,400명	전사
710,783명	부상	226,000명	부상
19,400명	실종	120,000명	실종 및 포로
8,800여 명	포로	민간인	
민간인		406,000명	사망
373,599명	사망	1,594,000명	부상
229,625명	부상	680,000명	행방불명
303,212명	행방불명	총계	
총계		700,000명	사망
522,604명	사망	1,820,000명	부상
940,408명	부상	800,000명	실종
435,468명	실종	총계 3,320,000명 사상	
총계 1,898,480명 사상			
미국		중국	
36,940명	전사	183,000명	전사
92,134명	부상	383,500명	부상
3,737명	실종	25,600명	실종 및 포로
4,439명	포로	총계	
총계	137,250명	592,100명	사상 및 실종
영국		베트남	
1,078명	전사	315명	전사
2,674명	부상	500명	부상
179명	실종	총계	815명
997명	포로		
총계	4,908명		
총계 : 1,500,000명 이상		총계 : 1,190,000명 ~1,577,000명	

(출처: https://alegria0702.tistory.com/208)

의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 서울에만 290개소의 기독교 교회가 있었으며 평양에는 4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압록강에서 부산까지 선교사들이 지은 병원, 초중등학교, 대학, 교회, 성당 들이 산재해 있었다. 따라서 이 시대 한국인은 서양의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사상에 대해 눈을 뜨고 있었으며, 이것이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한다. 특히 4대에 걸쳐 한국에서 사역한 언더우드 가문의 헌신에 대해 그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박사와 의사인 부인(Lillias Horton)이 한국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1885년)는 조선은 '은둔의 나라'였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보는 서양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였다. 언더우드 부인은 이런 장벽을 극복하는데 성공적이었으며 왕가의 의사로 일했다. 그녀가 서울에서 아들(Horace Horton Underwood, 1890–1951)을 낳았는데 아마도 한국에서 출산한 최초의 백인아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들 언더우드는 아버지를 따라 위대한 교육자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설립한 조선기독대학(Chosun Christian Church,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이었다. 그의 부인은 1949년 공산당 조직원에게 집 현관에서 암살되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그는 미국에서 휴양하고 있었는데, 6 · 25 동란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으나 미군에서 선교사의 한국행을 금지했으므로 미군 자원병으로 1950년 가을에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심적 충격과 과로로 1951년 2월에 사망하고 부산 선교사 묘지에 묻혔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모두 한국에 있었다. 맏아들 딕(Dick)은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미 육군에 자원입대하여 전투에 참가했다. 둘째아들 존(John)은 선교사였는데 민간 통역인으로 미군에 들어가 전투에 참여하면서 부산에서 난민구호에 진력했다. 셋째아들 호러스(Horace)는 미 해군장교로 일본으로 잠시 후퇴했다가 인천 상륙작전 때 크게 기여했다. 언더우드가는 평소에 해안선과 강을 따라 뱃놀이를 즐겼는데, 상륙작전에서 인천의 해류와 뻘, 그리고 한강의 위험한 해류를 아는 사람은 호러스 뿐이었다. 그는 또 정찰대원들과 한강을 거슬러 헤엄쳐 서울 상류에 있는 북한군 진지를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호러스와 딕은 1951–52년 개성과 판문점에서 열린 휴전협정 회의에 통역으로 참여해 한국인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고 협상을 이끌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의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다."(Caldwell and Frost, 1952)

전쟁 중의 식량 수급

광복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이어진 전쟁은 한국사회를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2백만이 넘는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을 맞은 남한은 식량을 비롯해 모든 물자가 모자라는 절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1947년에는 제조업의 가동률이 20% 수준으로 떨어져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의 부족이 심각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유엔의 지원과 구호물자가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미군정은 GARIOA (Government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Appropriate) 원조 계획에 따라 1946년에 6백만 달러, 1947년에 9,300만 달러, 1948년 1억1,300만 달러, 1949년 1억4,400만 달러, 도합 3억5,600만 달러의 원조 자금을 식량, 의류, 비료, 연료 공급에 사용하였다(Cho Soon Sung, 1967). 한국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미군정의 지원프로그램은 미 국무부 산하 경제협력국(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으로 이관되었다.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은 1949/50년 회계연도에 한국 원조자금 1억5,000만 달러를 승인해 줄 것을 1949년 6월 미 국회에 요청하였는데 상원에서는 통과되었지만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당시 미국 정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살아남지 못할 것 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요청안은 1950년 1월 미 국회에 재상정되어 상하원에서 모두 승인되었으며 1월 30일부터 ECA가 1억1,000만 달러의 원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금으로 모자라는 식량과 더불어 비료와 전력을 확충하여 식량생산과 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었다. 조순성은 만약 미국의 경제지원이 좀 더 일찍 결정되어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면 북한의 남침도 그렇게 쉽게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썼다(Cho Soon Sung, 1967).

필자는 1994년 미국 스미소니안연구소의 방문교수로 있으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국가문서보관소(The US National Archives)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경제와 식량사정에 관한 문서를 조사하였다. 본고에 미국 국가문서보관소의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한다.

전쟁 전의 식량사정

1949년 5월 1일 실시된 인구조사에 의하면 남한의 총인구는 20,188,641명이며, 인구밀도는 1평방마일에 558명으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미국 군정요원을 제외한 외국인은 21,885명으로 중국인이 가장 많고 주로 인천과 서울에서 거주하였다. 도시인구는 1935년의 11.60%에서 25.56%로 증가했는데 주로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과 일본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다(Franklin Ray Jr., May 9, 1950). 이러한 도시인구 증가현상은 주거문제, 공공서비스, 위생 공중보건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업인구 31%, 어업 0.44%, 광업 0.17%, 제조업 1.32%, 운수 0.37%, 공무원 2.06%, 가사 0.71%, 기타 1.48%이며, 60.52%가 무직인데 여기에는 어린이, 학생, 노인, 환자, 주부, 재소자,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일자리가 없어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1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북한 월남인과 일본 이주민으로 인해 실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도시민과 실업자의 증가는 값싼 노동력으로 산업발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가 1948년 10월 9일 시행한 양곡매입법은 턱없이 낮은 수매가 때문에 농민과 지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Franklin Ray Jr., May 9, 1950). 범정부적인 홍보와 강제집행이 시도되었지만 결국 목표량의 45%인 385만 2,000석을 매입하는데 그쳤다. 1949년의 농업생산 통계에 의하면 식량 자급을 위하여 미국에서 4,700만 달러의 비료를 수입하였다. 보리, 나맥, 밀, 귀리 등 하절기 곡물의 수확량은 770,857 M/T으로 1945년에 비해 약 25% 증가하였다. 이 해의 쌀 생산량은 240만 톤에 달했으며, 이것은 1941년 이래 최대수확을 거둔 1948년도 수확량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을걷이인 호밀, 수수, 좁쌀, 콩의 수확은 양호하였다. 어류와 수산물 생산량은 299,964 M/T으로 전해인 1948년보다 5% 정도 증가했으며, 어류가 78%, 수산동물이 16%, 해조류 3%, 패류가 3% 였다. 해조류와 조개류의 생산은 전년도보다 각각 14%, 20% 증가했으나 어류 생산은 3% 증가에 그쳤다. 이것은 어선의 노후화와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의 어민들은 영세하여 어선에 투자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 경제협력국(ECA)은 1951 회계연도에 어선 구입비용으로 2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Franklin Ray Jr., May 9, 1950).

한국은 국민의 3/4이 농촌인구인데 대부분 원시적인 농업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단히 가난하며 구매력이 거의 없다. 1949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은행 예금액은 448억 원으로 1달러 환율을 약 1,800원으로 계산할 때 일 인당 예금액은 1.5달러에 불과하다(Franklin Ray Jr., May 9, 1950).

1950년 3월 11일 한국주재 미국 경제협력국(ECA) 식량경제부 클라렌스 엣킬슨(Clarence R. Eskildsen)이 작성한– 한국의 1950년도 식량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표 3. 1948과 '49년 쌀 생산량과 수매상황 (Eskildsen, 1950)

	1948년		1949년	
	원본(백만석)	M/T 환산	원본(백만석)	M/T 환산
쌀 생산량	18.0	288만 톤	16.0	256만 톤
전년이월(정부)	1.2	19.2만 톤	0.6	3.6만 톤
전년이월(비정부)	0.0	0.0	1.5	24만 톤
농가용	9.0	144만 톤	9.0	144만 톤
정부수매	4.0	64만 톤	3.3	52.8만 톤
자유시장거래	6.2	99.2만 톤	5.8	92.8만 톤
총인구수(백만명)	20.2		20.7	
농가인구(백만명)	12.5		12.5	
쌀 배급인구(백만명)	6.3		2.3	
비배급인구(백만명)	1.4		5.9	

(주) 쌀 1석= 160kg

"한국 정부수립 이후 경제정책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은 한국의 생산 유통 경제주체들이 자유기업,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직 확신하기에 이르기는 하지만 한국정부의 고위인사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특히 식량공급 관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한국정부와 ECA가 체결한 지원협정에는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모든 비농업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적정 가격에 공급 받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적정한 식량을 공급받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대량의 곡물을 수매하는 것은 바라지 않으며 곡물의 자유 시장거래가 더 효과적이며, 실제로 쌀과 다른 곡물들의 자유 경쟁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1949년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50년도 식량계획은 대통령실이 선호하는 700만 석의 쌀을 수매하여 모든 비농업인에게 배급하거나 정부가 쌀을 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이었다. 반면 농림부는 430만 석을 수매해서 100만 석을 수출하고 약 100만 석을 미가 안정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350만 석을 농민으로부터 수매하기로 결정하고 그해 12월에야 약 90%가 수매되었다. 그러나 식량배급과 시장 유통이 원활치 않아 쌀값은 급등하고 농림부 장관과 차관이 사임했다. 양곡관리법이 '50년 2월 15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쌀 수확량의 1/3까지 수매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매가는 국회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남한에는 아직 경제복지나 기업 활동을 보장할 만한 방안이 수립되어있지 않다. 물가상승률은 1947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49년 12월 서울 도매가격은 290, 소매가격 257, 서울 임금은 374, 화폐발행고 370, 쌀 소매가격은 198이었다. 쌀 한말(20리터) 가격은 86센트였으나 환율이 급등하여 다음해 1월 말에는 60센트에 상당했다."(Eskildsen, 1950)

엣킬슨의 보고서에는 1948년과 1949년의 쌀 생산량과 수매 상황을 비교한 추정치들이 수록되어 있다(표 3). 이들 자료는 통계적인 정확도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분단 직후 남한의 쌀 생산량은 250만-290만 톤 수준이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수매보다 자유 시장거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보다 1949년의 쌀 배급 수혜자는 줄고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Eskildsen, 1950)

1949년 11월 14일 한국정부는 전국의 정부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미군정의 경제협력국(ECA) 한국사무소에 보고하였다(Franklin Ray Jr., Feb. 18. 1950). 미국무부 경제협력국에 보고된 자료에서 발췌한 경기도를 비롯한 5개 도의 식량 재고 목록은 표 4와 같다. 쌀, 보리, 밀(밀가루), 귀리와 콩이 중요한 식재료임을 알 수 있다. 밀은 밀가루의 형태로 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미 탈지분유가 상당량 원조의 형태로 한국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옥수수는 이때까지만 하여도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표 5는 한국 식량정책분과위원회와 미사절단 경제안

정위원회(American Mission Economic Stabilization Committee)가 작성한 1950년도 정부수매 미곡 350만 석(56만 톤)에 대한 사용 계획이다(Franklin Ray Jr., Feb. 11. 1950). 1인 1일 배급량은 대개 2홉(320g)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배급에 사용한 쌀은 1,745,000석(28만 톤)이며, 수출용으로 70만 석(11만 톤), 정부 비축용으로 1,075,000석(17만 톤)이 책정되었다. 값비싼 쌀을 수출하고 그 돈으로 값싼 조곡(보리, 밀)을 수입하여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하려는 것이 당시 식량정책의 일환이었다. 1950년에 10만 톤의 쌀을 일본에 수출하고 밀과 보리를 수입하였다(Franklin Ray Jr., April 5. 1950).

전쟁 중의 물가동향과 식량난

표 4. 1949년 도별 정부창고의 식량재고량 (Franklin Ray Jr., Feb. 18. 1950) (단위 M/T)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쌀(정백미)	2,956	1,962	1,309	943	4,396
쌀(벼)	3,652	4,342	1,769	3,949	3,869
찹쌀	41	47	57	17	3
보리	1,287	2,776	762[a]	4,173	82,050
귀리	2,065	706	592	374	237
밀	938	106	446	189	1,601
밀가루	3,261	55	424	13	934
잡곡	155	146	602	183	307
콩	45	1,612포	884포	204	39
분유	19	619	19	2	-

(주) 잡곡: 기장, 옥수수, 기타. a:+겉보리 4,477M/T.

표 6은 1949년부터 1951년까지의 부산지역 주요 식품 물가동향이다(Franklin Ray Jr., Feb. 25. 1950). 전쟁 중의 물가상승은 엄청난 것이었다. 쌀값은 전쟁 전인 1950년 1월 20리터(1말은 10되, 18리터 인데 여기서는 1말을 20리터로 표시한 것으로 사료됨) 즉 1말에 3,300원이던 것이 6월 15일에 19,000원으로 5.8배 상승 했다. 보리쌀(4.2배)보다 쌀값의 상승이 훨씬 높다. 그만큼 쌀이 귀해졌다는 것이다. 돼지고기, 달걀, 북어 등은 10배 넘게 가격이 상승했다. 1947년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식품 물가지수는 1950년 1월에 357, 전쟁이 시작되어 1년이 지난 1951년 6월에는 2,226에 달했다. 다른 물건보다 식품 값의 상승률이 현저히 높았다.

전쟁 중의 한국인들의 생활은 궁핍 그 자체였다. 1달러 환율이 6,000원이었으며, 대통령의 월급이 25달러, 부통령이 20달러, 국무총리가 17달러를 받았다. 초중등학교 교사월급이 7달러, 은행원이 6.66달러, 미군부대 고용인 11.66달러, 보통 노동자들은 일당이 1-2달러 수준이었다(Department of State, USA, Aug. 16. 1951).

한편 1951년 10월 미국무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한국 사무직 월급과 노무직 임금은 위의 자료 보다 훨씬 높게 조사되고 있다(Carpenter, S.S., Oct. 2, 1951). 한국은행에서 1951년 7월 사무직과 노무직 가정 47 가정에 대한 수입 · 지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사무직(평균 가족수 4.68인)의 평균 월급은 321,457원이며 기타수입이 213,418원으로 조사되었다. 노무직(평균 가족수 4.63)의 월평균 임금은 303,171원이며 기타수입 128,53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수입에 대

표 5. 1950년도 정부수매 미곡 사용계획

	기본 공급량		필요량	
	1인 1일, 홉	수혜 인구수	석	비 고
1. 특수 고용인	2홉	114,000	85,000	경찰, 간수, 소방인, 우체부(365일)
그들의 가족	2	386,000	209,000	'49 11,12월, '50 3-10월 총9개월
2. 주요산업 고용인	2	155,000	133,000	광산, 주요산업 고용인과 가족
그들의 가족	2	402,000	296,000	(365일)
3. 재소자, 억류자	2	58,000	42,000	(365일)
4. 1-3의 보충량	2	327,000	211,000	사무직은 0, 재소자는 1홉
5. 공무원 가족	1개월 2말	257,000	153,000	'50년 1-3월 대통령 명령
6. 군용미	-	-	307,000	군인과 그 가족들
7. 극빈자	1.7홉	483,000	309,000	223,000석은 1.5홉씩 (365일)
합 계			1,745,000석	

표 6. 부산지역 주요 식품 물가동향(1949–1951) (Franklin Ray Jr., Feb. 25. 1950). (단위 원)

	1949년 평균	1950년 1월	1951년 6월 15일
쌀(정백미)(20리터)	2,132	3,300	19,000
보리쌀(20리터)	1,656	3,080	13,000
밀가루(1포, 22kg)	3,228	3,750	43,000
콩(20리터)	1,879	2,500	18,000
쇠고기(1근, 0.6kg)	406	450	–
돼지고기(1근, 0.6kg)	338	400	4,800
달걀(10개)	338	400	4,600
북어(1쾌, 20마리)	624	1,300	14,000
배추(1관, 3.75kg)	355	780	2,000
무(1관, 3.75kg)	133	160	3,000
감자(1관, 3.75kg)	316	500	4,000
고춧가루(1되, 1.8 리터)	796	700	24,000[a]
참기름(1되, 1.8리터)	2,917	2,900	18,000
소금(1되, 1.8리터)	102	150	1,500[a]
간장(1되, 1.8리터)	209	260	1,500
된장(1관, 3.75kg)	550	600	5,000
설탕(1근, 0.6kg)	445	600	5,000
약주(1되, 1.8리터)	207	260	1,700
소주(1되, 1.8리터)	355	450	4,700
소비물가지수 전체 (1947=100)	–	326.5	2077.9
식품	–	357.7	2226.3
의류	–	245.3	1797.3
연료	–	313.1	2033.0
기타	–	239.6	1126.7

a: 2리터

한 용도는 표 7과 같다(Carpenter, S.S., Oct. 2, 1951).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국무부에 보낸 1952년 3월 26일 서신에는 한국의 식량사정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Strong G.B.. March 26, 1952). 쌀값이 한 말에 7만 원으로 오르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다. 3월 8일 유성의 대한청년단에서 '쌀을 달라'는 피켓을 들고 대전까지 행진을 했는데 경찰이 주모자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신문에 내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까지 미국무부에 보고되었다. 1952년 9월 15일 서신에는 당해 연도 쌀 생산량에 대한 추정치가 유엔군사령부(UNC)에서는 1,500만 석인데 반해 한국정부는 900–1,000만 석으로 추정해 차이가 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전해에도 UNC에서 1,300만 석으로 추정했는데 한국 농림부는 1,100만 석, 재정부는 900만 석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당시 재정부 장관 백두진에게 말했더니 그 차이는 수입쌀이라고 단언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첫째,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부터 절약을 강요당해온 농민에게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지 않으려는 의도, 둘째, 한국 군인과 경찰들이 중간에서 쌀을 빼돌리고 있다는 점, 셋째, 정부가 수입한 곡물은 주로 군인, 경찰, 공무원과 일부 민간인에게 배급되는데 이것은 수혜자에게 특혜이며 또한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점, 그리고 넷째로 정부가 배급쌀의 가격을 한 말에 9만 원(부산 자유시장 가격이 145,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할 때 인플레를 부추긴다는 언론의 강한 저항에 대한 우려 등을 들고 있다(Strong G.B.. March 26, 1952). 그러나 실제 속내는 한국정부는 가급적 생산량을 낮춰 미국의 원조를 더 많이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무부에 보고된 자료에는 식량부족으로 기아사태가 발생한 국내 신문기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민중일보와 코리안타임스 1953년 1월 28일자에는 농림부가 작년의 가뭄으로 530만 명에 대한 긴급 식량구호가 요구된다고 하고, 10월까지 89만톤의 곡물 수입이 필요하지만 유엔사는 현재까지 5만 톤 만 지원했다고 한다. 이 기사는 금년 5월에는 적어도 1백만 명의 기아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앙일보와 다른 2개 신문도 서남해안의

표 7. 1951년도 사무직과 노무직의 생활비 목록

	사무직(원)	노무직(원)
식품	182,822	156,445
주거비	22,395	8,814
광열비	17,126	20,512
의류비	59,653	31,360
공과세비	4,695	11,528
위생 의약비	22,992	15,872
교육비, 오락비	32,159	12,154
통신 여행비	9,696	2,633
연회비	2,425	659
잡비	13,247	20,718
기타	167,665	151,015
합계	534,875	431,701

섬에서 20만 명의 기아민이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요구된다는 기사를 썼다. 물론 이런 기사는 정부를 돕기 위해 썼겠지만, 이것은 또한 북한이 '남한이 망해가는 증거'라는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

1952년 11월 1일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953년도 한국정부의 곡물수입 필요량은 1,025,188 M/T 으로 발표했는데, 국내 생산량 2,560,000 M/T을 합하면 1인당 연간 1.16석(185kg,또는 1인당 1일 460g)이 공급되는 양이다. 이 양을 충족하기 위해 유엔군 한국민간구호처(CRIK: Civil Relief in Korea)가 328,570 M/T, 유엔 한국재건단(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이 79,200 M/T, 한국정부 해외교환 511,234 M/T, 민간무역 106,184 M/T 으로 채운다는 계획이었다. 한국정부의 해외교환은 쌀을 팔아 보리나 밀을 수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1952년부터 1953년 4월 30일까지 실제 수입된 양곡은 표 8과 같다(Mellen S.L.W., July 7. 1953). 반년동안 수입된 곡물은 목표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1953년 3월 주한미대사관 직원이 남부지방(진주, 남원, 광주, 보성)을 1주일간 시찰한 결과 실제로 그 지역 농민들은 쌀이나 보리 배급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야말로 초근목피에 고령토(kaolin)를 먹고 있었다. 농부들은 지난해 가뭄으로 쌀 수확이 1/2 또는 2/3로 줄었다며, 보리가 수확되는 5월까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게릴라들이 출몰하는 지역은 게릴라들에게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식량을 뜯어간다고 하소연하였다. 남부지역 대부분이 영양실조와 폐결핵이 만연하고 있었다(Mellen S.L.W., April 7, 1953).

표 9는 1952년 11월부터 1955년 6월까지 식량수급 현황(쌀 대등치)을 요약한 도표이다. 각 년도의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쌀의 수확량을 의미하며, 6월 1일부터 10월 31까지는 보리, 밀 등 여름곡식의 수확량이다. 국내 쌀 생산량은 1952/53년의 175만 톤에서 1954/55년의 260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공급량도 같은 기간 407만 톤에서 46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소비량은 1인당 연간 1.16석(185kg)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인구수와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Mellen S.L.W., July 7. 1953).

질병과 기아에 내몰린 국민들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UN과 미국의 원조였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UN은 '민간 구호 원조(Civil Relief in Korea)'를 추진, 1954년까지 4억 5,000만 달러의 물자를 지원했다. 밀, 옥수수, 쌀, 소금, 메밀, 캐러멜 등의 식량과 헌 옷, 담요, 침대, 고무신 같은 의류, 위생상자, 약품 같은 구호물품까지 다

표 8. 1952년 11월 1일 – 1953년 4월 30일 기간 중 수입된 곡물량(M/T)

	쌀	보리	밀	수수	밀가루	합계
한국정부 수입	66,018	38,926	15,700	-	-	138,583
CRIK 수입	53,418	55,575	27,374	19,554	-	155,881
UNKRA 수입	-	48,307	-	-	-	48,307
민간무역 수입	1,940	6,421	-	-	41,685	50,046
합계	121,376	149,229	43,074	19,554	41,685	393,817

표 9. 한국의 식량수급 현황(1952년– 1955년) (M/T, 쌀 대등치)

기 간(년.월.)	전년이월	생산량	수입량	총공급량	소비량[a]	익년이월
1952.11.-1953.5.	50,000	1,749,300	687,167	2,486,477	2,013,375	473,102
1953.6.-1953.10.	473,102	812,200	300,400	1,585,702	1,438,125	147,577
1953.11.-1954.5.	147,577	2,284,400	182,000	2,603,976	2,087,515	516,461
1954.6.-1954.10,	516,461	812,200	304,000	1,632,661	1,491,082	141,579
1954.11.-1955.5.	141,579	2,600,000	182,000	2,923,579	2,170,000	753,579
1955.6.	753,579	900,000	26,000	1,679,579	310,000	1,369,579

a: 소비율= 1인당 연간 1.16석, 인구 1952년11월- 2,160만; 1954년11월- 2,300만명

양한 원조 물자가 제공되었다. 전쟁 초기 피난민에게 지급된 하루 쌀 2홉과 현금 50원은 전쟁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휴전을 앞둔 1953년 미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 재건과 공산화 저지를 위해 원조에 나섰다. 미 국방부의 대외활동본부(FOA)와 국무부의 국제협조처(ICA) 주관으로 1961년까지 17억 4,000만 달러의 자금이 한국에 들어왔다. 이 원조 자금은 한국과 미국 관리가 참여하는 합동경제위원회를 통해 집행되었다. 그러나 원조 방향에 대한 입장은 한국과 미국이 달랐다. 한국 정부는 전기 · 비료 · 시멘트 등의 기간산업을 건설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소비재 공급과 함께 경공업 위주의 지원을 원했다. 결국 공여국인 미국의 뜻에 따라 소비재 및 그 원료가 원조 물품의 7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결과 식품공업은 섬유공업과 함께 가장 큰 해택을 받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1956년부터 한국에 'PL480 원조'(Public Law 480)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56년부터 1961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밀, 보리, 쌀, 원면, 돈육통조림, 잎담배 등을 제공 받았다. PL480 원조는 전후 고질적인 식량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식품 소재를 조달, 식품공업이 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광복 이후 제I공화국의 한국인 식량영양 상태

광복과 전란을 겪은 1945년부터 1960년 기간은 사회경제적 격동 못지않게 우리의 식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기간이다. 이 시대의 식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6 · 25전쟁이었다. 전쟁 중에 굶주린 한국인은 미국에서 원조물자로 들어온 분유의 무상배급으로 우유를 먹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민은 평상시라면 소화불량으로 먹지 않을 우유를 전쟁의 특수상황에서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고, 계속 먹다 보니 우유를 먹지 않던 민족이 우유를 먹는 민족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이후 한국인의 식사습관을 바꾸어 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미군과 유엔군에서 유출된 각종 과자류와 통조림류는 기아선상에 있었던 한국인, 특히 어린이들에게 순식간에 받아들여졌다. 서양 과자류는 이때에 전국적으로 소개되어 그 후 공업화 생산이 성립될 수 있었으나, 반면 전통 한과류는 급속히 잊히게 되었다.

이기열 등(1998)은 전쟁기간 동안의 영양섭취상태 조사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지 전쟁 시에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25%나 되었고, 농업 생산은 27% 감소되었으며 남한에서 집을 잃고 방황하는 전재민의 수가 20여만 명에 달했다는 자료에서 당시의 참혹함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광복 후 미국의 잉여 농산물 도입량을 조사하여 보면 밀과 밀가루의 도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밀가루 분식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는 1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인 절대빈곤 시대로 규정될 수 있는 시기이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2021). 한국통계연감(1970)에 의하면 남한의 인구수는 1946년 1,936만 명에서 1955년 2,150만 명, 1959년에는 2361만 명으로 증가했다. 표 10에 보면 1954~1964년 사이에 GNP는 72~107달러 수준이었으며 엥겔계수는 농가에서 74~59% 수준, 도시근로자의 경우 41~56%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표 11은 기간 중 연도별 주요 식품의 1인 1일당 공급량을 추산한 것이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2021).

남북 분단과 6 · 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모든 식품의 절대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말까지도 설탕류 · 견과류 · 종실류 · 계란류 · 우유류 · 유지류의 생산 공급은 미미한 상태였으며 1960년 초에 들면서 비로소 이들 식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설탕 · 유지류 · 우유들이 전쟁을 통하여 유입되고

표 10. 한국전쟁 이후 10년의 국민총생산과 엥겔계수의 변화

년도	1인당 GNP	엥겔계수	
	($)	농가(%)	근로자(%)
1954	72	73.6	41.2
1955	67	72.1	45.5
1956	68	69.5	44.6
1957	77	69.9	43.0
1958	83	58.8	41.6
1959	84	53.9	39.2
1960	82	55.9	38.9
1961	85	58.6	41.3
1962	90	55.9	43.2
1963	104	60.3	45.2
1964	107	59.0	56.7

표 11. 광복 이후 연도별 주요 식품의 1인 1일당 공급량 변화

(단위 g)

년도	1946–48	1956	1962
곡류	334.9	381.1	477.6
쌀	247.9	295.3	331.4
밀가루	15.6	23.8	34.0
보리	51.0	48.5	104.3
기타	20.4	13.5	7.9
설탕류	–	–	4.7
서류	37.7	46.3	98.1
두류	23.2	25.5	16.3
견과류	–	–	0.2
종실류	–	–	0.2
채소류	85.2	92.9	99.0
과실류	7.0	12.0	15.1
육류	5.6	9.8	12.9
계란류	–	–	4.4
우유류	–	–	0.4
수산물	22.6	31.4	40.2
유지류	–	–	0.8

보편화됨으로써 한국인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표 12는 이 기간 중의 식품 수급표에서 추산된 1인 1일당 영양공급량과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조사 보고된 영양섭취량을 비교한 것이다(채예석(1948); Lee K.Y. et al. 1962; 유정열, 채예석(1962); 주진순 1968). 식품 수급표에서 추산된 영양공급량은 총에너지 1,380~1,940kcal 수준, 단백질 41~53g 수준으로 대단히 낮은 반면 영양섭취 조사의 결과는 공급량의 거의 1.5~2.0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통계자료의 부정확, 조사범위의 비대표성에 기인한 점도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절대빈곤의 시대였으므로 행정통계에 오르지 않는 다양한 구황식품 재료들이 식용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이철호 외, 1988; 이철호, 권태완, 2003). 또한 이 시기의 영양섭취의 특징은 계절에 따른 영양섭취량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다. 이기열과 이양자(1977)의 연구에 의하면 1950년대 및 1960년대에는 춘궁기에 뚜렷한 영양섭취량의 감소가 나타나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1957년에 간행된 방신영의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제30판에 수록된 1주일간의 식단표 두 가지 예를 같은 저서에 있는 음식제조법의 분량에 근거하여 각 식단의 영양가 평가를 한 결과 제 1예의 경우 일일 평균 열량 공급량은 2,065kcal, 단백질 81.5g이며 총열량 중 탄수화물에서 73%, 단백질에서 15.5%, 지방 11.5%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 제 2예의 경우는 일일 평균 열량공

표 12. 광복 이후 20년의 식량공급량과 영양섭취량 조사결과의 비교

	영양공급량(1인 1일당)			영양섭취량(1인 1일당)			
	1946–48	1956	1962	1948[a] 가을전국	1959[b] 농 촌	1961[c] 여름농촌	1966[d] 여름가을농촌
조사대상수				(6054명)	(100~70명)	(340명)	(165~112명)
총에너지(kcal)	1,378	1,579	1,943	2,438	2,502	2,353	2,608
식물성(kcal)	1,345	1,529	1,863	–	–	–	–
단백질(g)	41.3	48.3	53.2	88.6	77.7	39.1	73.4
동물성(g)	4.6	6.8	7.5	7.4	–	9.3	4.0
지방(g)	8.9	11.0	13.1	18.2	14.7	16.4	8.6
Ca(mg)	143	164	299	330	360	497	258
Fe(mg)	15	17.6	10.8	42	16.2	19.6	23.2
비타민A(IU)	574	662	957	5,218	3,709	3,982	2,269
B1(mg)	0.75	0.95	1.17	1.3	1.5	1.56	1.09
B2(mg)	0.47	0.54	0.49	1.0	0.98	0.91	0.80
Niacin(mg)	9.6	10.9	18.2	–	19	23	–
C(mg)	36	40	49	78	121	133	87

a: 채예석(1948), b: Lee K.Y. et.al.(1962), c:유정열, 채예석(1962), d: 주진순(1968)

표 13. 방신영의 식단표에 대한 영양가 분석(1주일 평균 1일 공급량)

	제1예	제2예	한국인 영양권장량 (성인남자)
총열량(kca)	2,066	2,085	2,500
탄수화물(%)	73	70	
단백질(%)	16	18	
지방(%)	12	12	
단백질(g)	81.5	98.2	75
동물성단백질 (%)	17.73	33.3	
Ca (mg)	631	643	600
P (mg)	1,074	1,226	
Fe (mg)	27.7	28.2	10
Vit. A (Re)	909	703	750
Vit. B_1 (mg)	1.54	1.27	1.3
Vit. B_2 (mg)	1.74	1.64	1.5
Vit. C (mg)	150	93	55

급량은 2,084kcal, 단백질 98g이며 총열량 중 탄수화물에서 70%, 단백질 18%, 지방 12%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표 13)(이철호, 류시생, 1988).

1960년 보건사회부는 한국인 잠정 영양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962년에는 FAO 한국협회에서 최초로 공식 한국인 영양권장량이 마련되었다. 이 영양권장량에는 성인 남자(25세)의 일일 에너지 2,900kcal, 단백질 70g의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장량은 실제 공급될 수 있는 식량에 비하여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이철호, 2021).

이 시기에 유정렬 등(1962)에 의하여 수행된 국민영양상태에 대한 생화학적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검사자들이 혈액의 여러 성분이나 뇨중 비타민 B1 및 B2의 배설양 등은 모두 정상치 범위 내에 있었으나 매우 낮은 수준에 위치하였다. 또 다른 임상적 조사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A, B2, 단백질 및 Ca 부족에서 오는 질환이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58년 초등학교 아동의 도시락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내 아동에 비해 서울근교의 지방학생들은 에너지가 50kcal 적어, 지역에 따른 영양소 섭취수준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마복자, 박일화, 1958). 조사아동의 16%가 에너지 부족이었고, 부식으로 식물성 식품만 가져온 아동은 43% 였으며, 지방학생들은 빈곤으로 인해 45%가 결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학생 중 도시락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조사기간 내내 계속 밥과 고추장 혹은 무장아찌만을 가져왔다. 그 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60% 이상이 단백질이 부족하였고 약 71%가 체중이 부족한 영양불량 상태였다.

1953년 당시 한국 성인의 평균 체위를 보면, 신장은 남자 166.46cm, 여자 154.82cm 였고, 평균 체중은 남자 58.55kg, 여자 53.47kg으로 일본보다는 크고 구미인 보다는 작았다(김인달, 1956). 국민 사망률은 광복 이후 인구 1,000명당 10명 수준으로 일본, 미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전쟁기간인 1950–'55에는 1,000명당 20–26명 수준이었다. 영아사망률은 1945년 이후 1,000명당 70명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전쟁 중에는 100명 수준으로 높아지고 다시 1957년 54명으로 낮아져 일본의 40명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이시기의 평균수명은 남자 약 51세, 여자 약 53세로 일제 강점기보다 10세 정도 향상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사망원인은 폐렴과 결핵이었다(장미라, 1998).

한국 식품산업의 태동

광복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국민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식품을 생산하는 일은 잠시도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공업화의 기틀을 마련해가던 식품 분야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최소한의 기반마저 상실하고 만다. 이는 국민들의 식생활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전쟁으로 농사가 중단되면서 양곡 생산량이 급락했고 식품제조시설이 파괴되면서 식품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식량 소재산업으로 중요한 제분공장은 광복 당시 7개 제분회사가 있었으나 한국전쟁 중에 대부분 파괴되었다. 1954년 4월 조선제분주식회사가 영등포 공장을 복구해 1,000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고 7월에는 대한제분이 일본제분 인천 공장을 인수, 양산체제를 갖추었다. 이로써 연간 3,000배럴 규모의 제분 생산량을 회복했으며 1956년에는 1만 배럴 규모까지 생산량을 확대하였다. 조선제분과 대한제분은 원조로 확보한 1만 톤의 밀을 반씩 수급하여 밀가루를 공급했다.

설탕은 일제강점기에 해주에서 생산되던 일본설탕공사가 이북으로 들어갔으므로 광복이후 남한에서는 수요가 급등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1953년 삼

표 14. 한국 식품산업의 태동

산업분야	대표적 기업 설립 년도	
장류산업	1945년	김방장유조합(현 매일식품)
	1946년	삼시장류양조장(현 샘표식품), 산정장류양조장(현 몽고식품)
	1948년	대창장유사(현 진미식품)
제과산업	1945년	해태제과, 영일당(현 크라운제과)
	1956년	동양제과가 풍국제과를 인수
통조림산업	1945년	조일산업
유가공산업	1945년	서울우유협동조합
제당산업	1953년	제일제당(창업주 이병철)
	1954년	삼양사, 대한제당
제분공업	1954년	조선제분주식회사 영등포공장 복구
	1954년	대한제분이 일본제분 인천 공장을 인수
음료공업	1948년	동방청량음료합명회사
	1956년	동양맥주
조미료공업	1956년	동아화성공업(현 대상) (창업주 임대홍)
인삼제품 산업	1958년	고려인삼제품
빙과류산업	1959년	삼강산업(현 롯데푸드)

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국내 최초의 제당 공장인 제일제당을 설립, 설탕 생산을 시작했다. 출하된 '백설표' 설탕은 만들면 팔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었다. 이를 본 많은 기업이 제당업에 진출, 1954년부터 창업 러시를 이루기 시작했다. 연간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업계에서는 대한제당협회를 설립해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과당경쟁은 이어졌고 업계 내에서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당업계는 1958년 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의 3사 체제로 재편되었다.

제과 분야는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와 영일당이 원조 밀가루를 이용해 과자와 빵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전쟁 후에는 밀가루와 설탕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제과업체들이 생산체제를 구축하였다. 풍국제과를 인수한 동양제과가 1956년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영일당은 1958년 크라운제과로 회사명을 바꿔 다양한 과자류를 출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많은 영세 제과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형성된 장류 수요의 충족을 위해 1945년 김방장유양조장(현 매일식품)이 순천에 설립되었고, 1946년에는 삼시장류양조장(현 샘표식품)과 산정장류양조장(현 몽고식품)이 장류 생산에 들어갔다. 이어 1948년에는 대창장유사(현 진미식품)가 출범하였다. 이들 회사는 일제가 남긴 시설로 출발했지만 자체 기술로 상표 등록과 공장 증설을 이루면서 사세를 확장해 나갔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통조림 산업은 1892년 일본인이 전남 완도에 전복통조림 공장을 설립한 이래 1922년에는 19개소로 늘어 동해안과 남해에 다수의 통조림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45년 설립된 조일산업은 통조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동해안의 주 어종인 꽁치 · 고등어 · 골뱅이 등을 제품화 해 출시했으며 이후에는 과일 통조림으로 제품군을 확대하였다.

유제품 분야는 경성우유협동조합이 1945년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전환되어 우리나라 유가공업을 주도하였다. 서울우유는 1948년 전국에 우유 판매 특약점을 개설하고 '건강 우량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등 우유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섰다.

음료공업은 1948년 설립된 동방청량음료합명회사가 1950년 칠성사이다를 출시해 국산 사이다 시대를 열었다. 전쟁으로 잠시 가동을 멈췄던 동방청량은 1953년부터 생산을 재개했고 1954년 일본에서 반자동 혼합기를 도입해 '오렌지-쥬스', '세분업' 등의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이밖에도 풍국주정공업과 평화음료, 문화음료 등이 설립되어 '오렌지주스', '밀크', '칼피스'를 출시했고 1956년에는 동양맥주가 청량음료인 'OB시날코'를 개발하였다.

국내 최초의 인공조미료 '미원'은 대상의 창업주 임대홍 회장이 1956년 부산에 동아화성공업을 설립하면서 탄생했다. 맛의 원천이란 뜻을 담은 '미원'의 출시로 일본 조미료 '아지노모토'가 국산으로 대체되었으며 주부들의 호응 속에 조미료 시장이 성숙하기 시작했다. 동아화성공업은 이후 미원식품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조미료와 전분당, 감미료 등의 제품을 출시하였다. 1958년 설립된 고려인삼제품(1988년 고제로 사명 변경)은 1959년 국내 최초로 인삼정 · 인삼주를 출시했으며 인삼제품과 즉석제품의 수출을 실현, 인삼 식품공업 분야를 개척했다. 이밖에도 1958년 롯데푸드의 전신인 삼강산업(일동산업으로 설립해 1963년 삼강산업으로 사명 변경)이 출범, '삼강하드'를 필두로 빙과류와 유지 제품을 출시하였다.

휴전 후 1950년대 말까지 국내 식품공업을 제당, 제분

등의 소재공업을 중심으로 제과, 제빵, 음료 분야가 궤도에 올랐으며 조미료, 인삼, 빙과 · 유지 등 분야별 선구자들이 제품을 출시하는 태동기에 접어들었다. 주목할 것은 원조로 들어온 잉여농산물이 한국인의 입맛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쌀을 위주로 하던 식단이 밀과 고구마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특히 밀가루는 빵집과 중국집의 등장은 물론 1970년대에 붐을 일으킨 라면의 전성시대를 여는 등 새로운 가공식품의 시대를 만들어냈다(한국식품산업협회, 2019).

References

Caldwell, C. and Frost, L., The Korea Story, Henry Regnery Co., Chicago. p.152 (1952)

Carpenter, S.S., Cost of living in Pusan, Department of State, USA., Oct. 2 (1951)

Cho S.S,,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Department of State, USA, The Economic Squeeze on the Korean People, August 16. (1951)

Eskildsen, C.R., Food policy during 1950, Republic of Korea, A Joint State -ECA Despatch, March 11, (1950)

Gilbert, Bill, Ship of Miracles. Triumph Books, Chicago (2000)

Franklin Ray Jr. J,, Economic Stabilization Action on Food Program for 1950, A Joint State-ECA Despatch, Feb. 11. (1950)

Franklin Ray Jr. J,, Nation-wide Inventory of Warehouses, ECA Mission Korea, Feb. 18. (1950)

Franklin Ray Jr. J,, Monthly Economic Report, March 1950, ECA Mission Korea, April 5. (1950)

Franklin Ray Jr. J., Summary of Basic Economic Information, ECA Mission Korea, May 9. (1950)

Lee, K. Y., C.S. Song, J.M. Yang, M.H. Kim, C.T. Soh and J.C. Thomson, 1962, Dietary Survey of Korean farmers, J. Home Economics, 54(3),

Mellen S.L.W., Food Shortage in Kyongsang Namdo, Cholla Pukdo and Cholla Namdo, AmEmbassy, Pusan, April 7, (1953)

Mellen S.L.W., Food Supplies, AmEmbassy, Pusan, July 7.(1953)

Strong G.B.. Food Situation in Korea, Department of State, USA, March 26, (1952)

강인희, 한국식생활사, 삼영사, p.249 (1978)

국가기록원, 6.25 한국전쟁 기본 정보 및 주요 사건 정리, https://alegria0702.tistory.com/208 (2021)

김인달, 한국인 체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 3. 75-133 (1956)

마복자, 박일화, 초등학교 아동의 도시락 실태조사, 가정학보, 6. 1-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1958)

방신영, 《우리나라 음식만드는 법》, 장충도서 출판사 (1957)

유정열, 채예석, 국민영양조사(제2보), 국립화학연구소, 10, 82, (1962)

이기열, 이양자, 「한국인의 균형식 권장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0(2), 59, (1977)

이철호, 식량전쟁, 도서출판 식안연 (2012)

이철호, 한국식품사연구, 도서출판 식안연 (2021)

이철호,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인의 식량·영양 상태, 식품과학과 산업 55(2), 218-238 (2022)

이철호, 권태완, 한국식품학입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이철호, 류시생, 「한국전통식단의 영양가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 275-280 (1988)

이철호, 주용재, 안기옥, 류시생, 지난 일세기 동안의 한국인 식습관의 변화와 보건영양상태의 추이 분석, 한국식문화학회지, 33(4), 397-406 (1988)

장미라, 1945-1959년의 식생활 및 영양상태, 이기열, 이기완, 박영심, 박태선, 김은경, 장미라. 한국인의 식생활 100년 평가(I), 신광출판사, 서울, p.45 (1998)

주진순, 「한국인의 영양현황」, 《한국영양학회지》, 1(1), 1 (1968)

채예석, 경성을 중심으로 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 조사보고, 국립화학연구소보고, 1(65) (1948)

한국식품산업협회, 국민과 함께 걸어온 식품산업 반세기, 한국식품산업협회 50년사 (2019)